

## 이재욱, 신민영 가정의 11 번째 키르기즈스탄 편지

###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에게

벌써 이곳 키르기즈에서 세 번째 맞이하는 겨울입니다. 여름에 잠시 한국을 다녀오고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올 여름 가을은 수학동화책 출판과 새로 시작하는 교수 사역으로 이래저래 바빴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 성탄을 맞아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해야 한다는 마음에 컴퓨터를 켜며 무엇을 전해야 하나 잠시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있기에 그저 감사합니다.

### 감사의 마음

지금 이렇게 2015 년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작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편지를 다시금 읽어 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때 저희가 그저 소망하기만 했던 여러 사역들이 아버지 안에서 길이 열리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 사역이 막혀서 FOK 에서 한국어와 사물놀이를 가르치며 아버지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나 기다리며 소망했는데, 지금 부족하지만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소개하려고 노력하며 기회가 되는 대로 아이들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간 가을 소풍,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저희집에서 김치만들기, 그리고 올 연말에 송년 모임계획. 부족하지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려 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러한 모임들 가운데 저희 가정과 의미있는 만남으로 연결되는 학생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어과 학생들과 가을 소풍>



<김밥 만드는 시간>



또한 오랜 기간동안 준비하고 소망하던 수학동화책이 드디어 출판되어 판매에 들어가게 되어 감사합니다. 출판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이 나라 사람들의 특성과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두어 달 동안 아는 지인들과 몇몇유치원에 판매했고 지금은 새롭게이곳저곳에 납품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은 책을 만드는 사람이 처음부터 판매까지 다 알아서 해야할 만큼 유통구조가 열악하고 경제 기반구조가 잘 잡혀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이 스스로도 아이들에게도 책에 대한 중요성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책을 수입해 파는 것도 힘든데 출판해서 판다고 하니 종종 스스로 멘땅에 헤딩하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방 한가득 쌓여있는 책을 바라보며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책들을 보급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사역의 주인 되셔서 책임지시길 소망하며 여러 생각과 염려를 그분의 발앞에 다시금 내려 놓습니다.



<출판 기념 ○배>



<키르기즈 책,인쇄 박람회장에서>

저희 가정과 매주일 교체하고 있는 현지 가정과의 만남도 감사함으로 지속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었던 남편 데니엘이 저희 가정과의 만남과 교체 이후로 한동안 게임을 끊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 오다가 아내가 지방에 일이 있어 일주일 이상 집을 비우자 다시금 게임에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돌아오고 저희와의 만남 가운데 다시금 일어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금 일어서고 넘어지고 반복되는 실수와 돌아옴. 때로 그들의 삶의 문제가 내 삶에 무게를 더하고 나를 흔들 때는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전치 못한 나를 이제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들을 붙들고 가려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사랑이 없지만 나를 채우시고 만드시는 분이 계시기에 이젠 그들 가족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깨닫습니다. 부족했던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족한 저희에게 당신의 양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삶의 소소한 부딪힘을 느끼며 저희 가정은 100일 작정 예.배를 드리기로 하여 오늘로 이십일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말.숨.찬.양. 그리고 기.도를 드리며 아이들 입에서 끊이지 않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렇게 예.배를 결정하고 난 후로 저희 가정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지는 것을 봅니다. 한밤에 전기가 나가 꼬박 밤을 떨며 보내고 그 다음날도 저녁까지 냉방에서 전기 공사가 무사히 마쳐지기를 기다렸던 일. 차를 후진하는데 눈에 덮힌 수로를 보지 못해 왼쪽 두 바퀴가 모두 수로에 빠져 두어 시간을 아이들과 눈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기다리며 간신히 차를 끌어 올린 일. 그리고 며칠 전에 우회전을 하다가 아주머니 한 분을 부딪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주머니는 가벼운 타박상이었는데 병원에서 경찰로 전화를 해서 차가 경찰서에 압류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찾아가니 자신은 일 안 한다고 다음날 오라하고, 다음날 가니 피해자와 합의해서 다시 오라하고, 멀쩡하던 아주머니는 합의해야 한다고 하니 예상치 않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모든 과정에서 화도 나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분으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았고 죽더라도 천.국에 갈 것이기에 무조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시기에 그것으로 감사하며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하늘 가족 여러분에게 아버지 한 분으로 인한 감사함이 넘치시길 소망해봅니다. 불평, 원망과 분냄의 소리들.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모든 시끄러운 분쟁의 소리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 시편 46편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아버지께서 왕이심을 고백할 때 가장 치열하고 시끄러운 내 마음의 전쟁터에 주님이 왕으로 임하십니다. 그냥 조용히 '아버지...!' 그분을 부를 때 감사할 것이 넘쳐서가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기에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때 진정한 감사와 평안이 찾아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 기도제목

1. 수학동화가 잘 보급되어 이 땅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2. 대학에서 만나는 학생들 가운데 의미있는 만남으로 연결되는 학생이 있기를
3. 현지인들과의 만남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할 수 있기를
4. 이 겨울 동안 가족모두 영.육 간에 건강하기를
5. 한국에 있는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 연락처

연락처: 070-8616-0981 핸드폰)996-777-888-233

이메일: [jingis1973@hotmail.com](mailto:jingis1973@hotmail.com) / [2myshin@gmail.com](mailto:2myshin@gmail.com)

## 재정후원

한 구좌에 만원 혹은 이만원 혹은 삼만원을 선택하여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외환은행 079-04-0000313-5 (한국인터서브: 이재욱 가상 계좌)

- 재정후원을 시작하신 분들은 인터서브 사무실 재정 담당 간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간사 070-4352-6513, e-mail: [finance.isk@intersk.org](mailto:finance.isk@intersk.org) )